

2013년 중국 경제 전망과 시진핑정부의 금융정책 동향

안 유 화

국제금융실 연구위원



들여가기 전에.....

중국 금융시장 FOCUS

China Financial Market Focus

2012년 01월 호

지난호 보기

Opinion & Hot Issue

- **Opinion: 2012년 중국경제 전망과 주요이슈(연구위원 안유화)**
2011년 중국 연간 GDP는 47조 1,564억위안으로 전년대비 9.2% 성장했다. 2012년의 중국경제에 대해 중국정부는 “온중구진(稳中求进)”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안정(穩定)적인...
- **Hot Issue: 2012년 중국의 시장유동성 문제(중국 사회과학원 팡흥문 박사)**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2011년 중국은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유럽 채무위기 악화, 미 상원의 위안화 환율개혁 법안 통과, 미국의 환율조작국가 리스트에 중국을 포함시키려는 압박, 중국의 대미 수출상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 ...



중국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제도동향

- 증권: RQFII 국내 증권투자 시범방법
- 은행: 상업은행 유동성 위험관리 규정(시범) 의견수렴안 제정
- 보험: 재중 취업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 참가 집행방법

중국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동향

- 증권 산업: QFLP의 추진현황 및 시사점
- 은행 산업: 중국 은행업 발전회고 및 2012년 전망
- 보험 산업: 중국 보험업 동향 및 2012년 전망
- 리스 산업: 중국 리스산업 현황과 리스시장의 전망
- 부동산 시장: 중국 부동산 시장 동향과 2012년 전망
- 시장지표: 증권시장 월별동향과 거시경제지표 및 2012년 02월 중국 경제지표 발표일정

사례로 보는 중국 금융시장

- 외상투자기업의 중국 증권시장 상장사례 분석

INDEX



Part A : 2013년 중국경제 전망과 주요이슈



Part B : 시진핑정부의 금융정책 동향

Part A

2013년 중국 경제전망과 주요이슈



A.1.1 주요국 세계경제 성장 기여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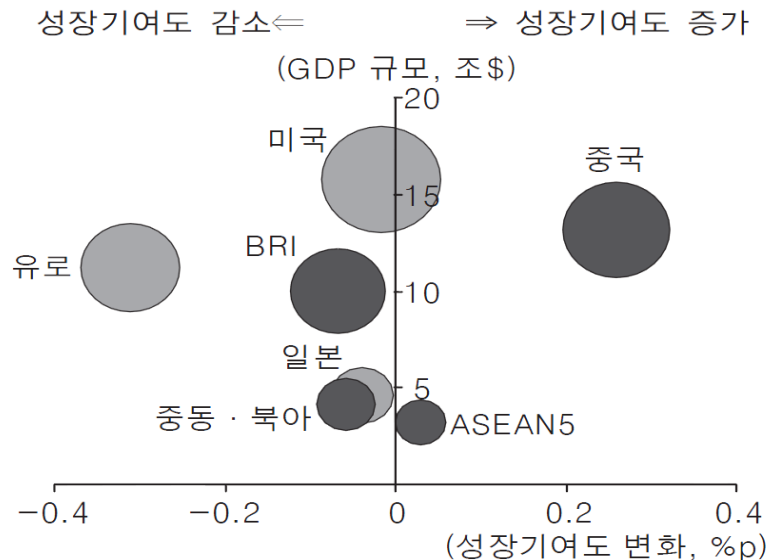
❖ 현재 세계경제는 중국이 이끌고 미국이 지탱

❖ 앞으로 10년도 세계경제는 중국이 이끌 것으로 예상

- 중산층의 등장: 가구당 가처분 소득 5000~3만 5000달러 인구는 '09년의 4억 6000만명에서 '20년에는 9억 7000만명 예상

- 부유층 등장: 가구당 가처분 소득 3만 5000달러 이상은 '09년의 2000만명에서 '20년에는 1억 3000만명으로 달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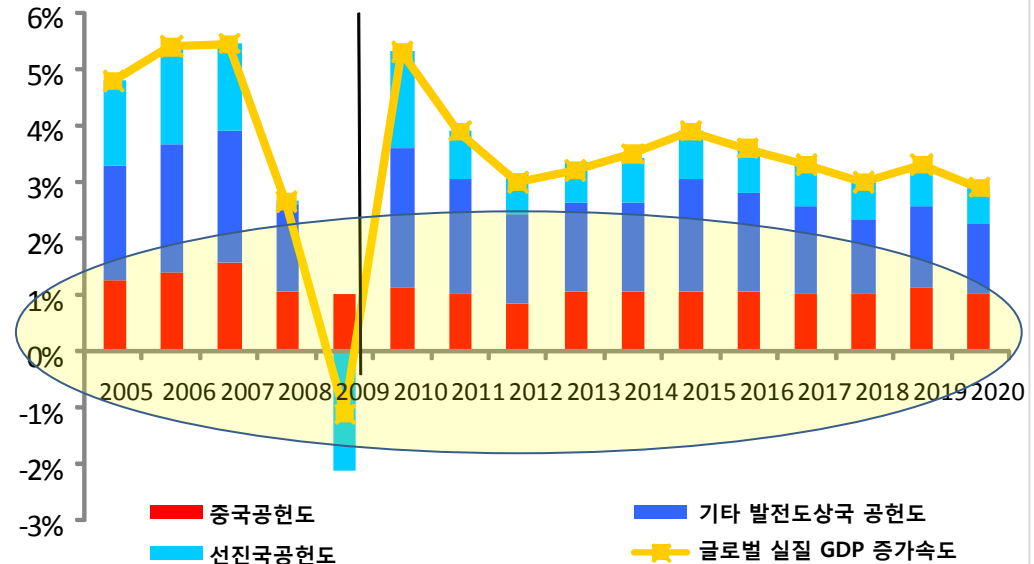
주요국 세계경제 성장 기여도 변화



주: 성장기여도 변화 = 2013년 성장기여도 - 위기전('00~'08) 평균 성장기여도
원의 크기는 2013년 실질GDP 크기(2010년 PPP기준임)

자료: IMF

미래 10년 세계경제 성장 기여도 전망



자료: IMF, 신은만국리서치



A.1.2 2012년 중국경기 지속적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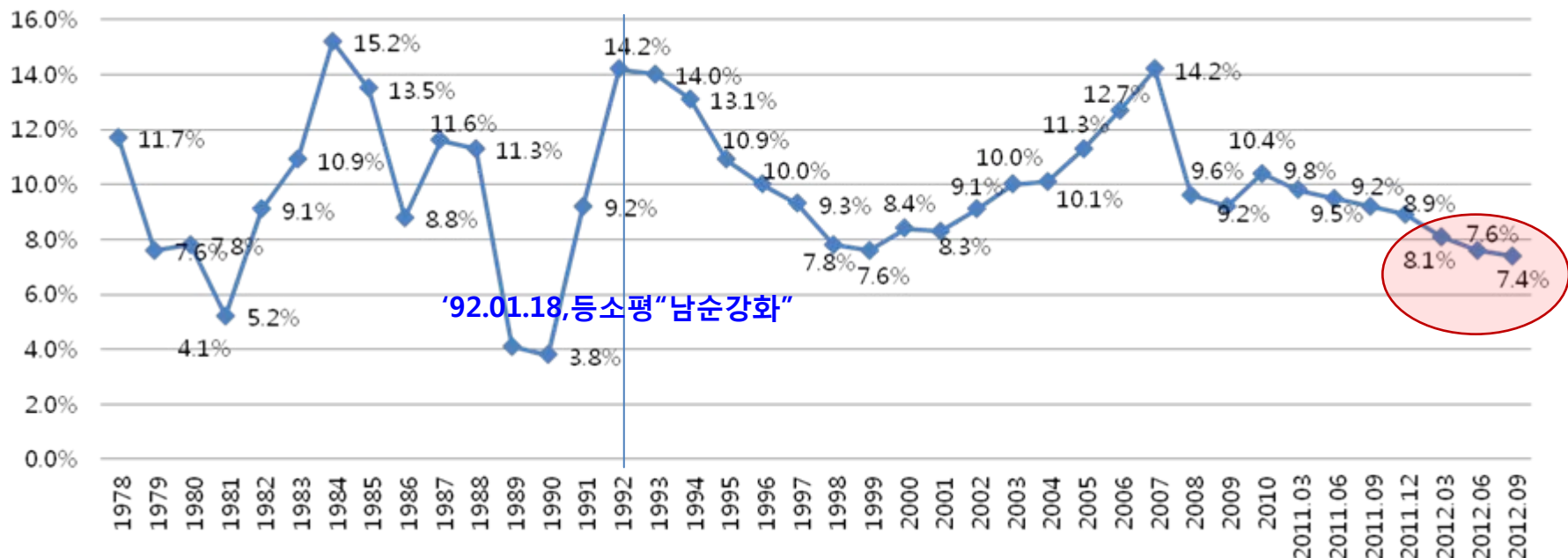
❖ 2012년 7.7% 성장률, GDP규모 7.58조\$, 1인당 GDP 5,476\$ 예상

- 중국 경기 둔화- 3분기에 더욱 악화되어 경제성장률이 7.4%를 기록
- 중국 1~9월 국내 총 생산 35조 3천480억위안, 동기대비 7.7% 성장

❖ 과거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중국정부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8.0%에서 7.5%로 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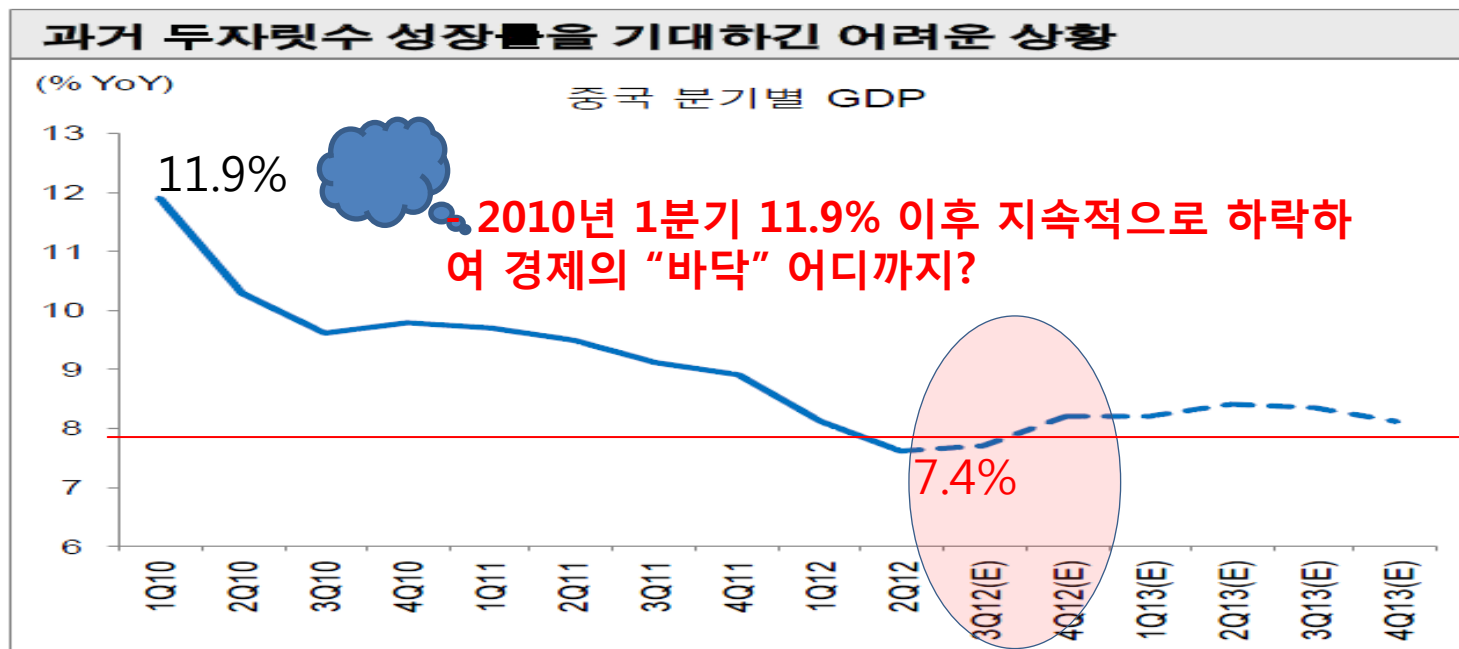
1978~2012년 중국 GDP 성장률 추이





A.1.3 2013년 중국경기 둔화세 완화예상

- ❖ 2013년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 전년도 기준 7.5~8.3% 내외 예상
 - 2013년 투자,수출,소비 3대 수요가 전년도 기준 각각 20.1%,8.9%,14.6% 성장률로 가정할 경우 GDP 성장률 7.8%



자료: Bloomberg

ISSUE: 이미 “중진국”단계로 진입한 중국경제는 ‘중진국 함정’ 우려가 가중되는 가운데
경제구조 개선과 새로운 성장모멘텀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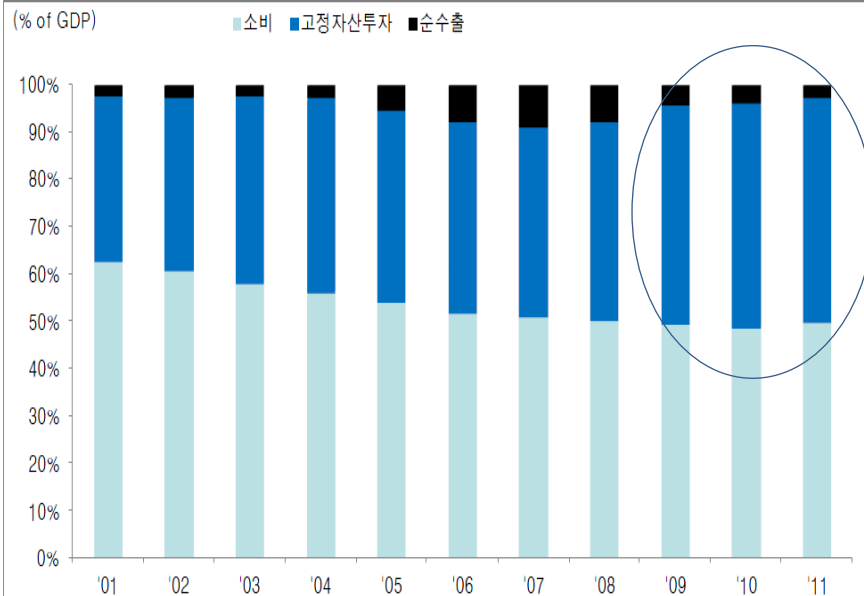
A.2.1 중국경기 하락원인-투자

❖ 투자 증가 부진이 주요원인

-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투자로 성장을 이끌어 왔으나 최근 투자 증가는 둔화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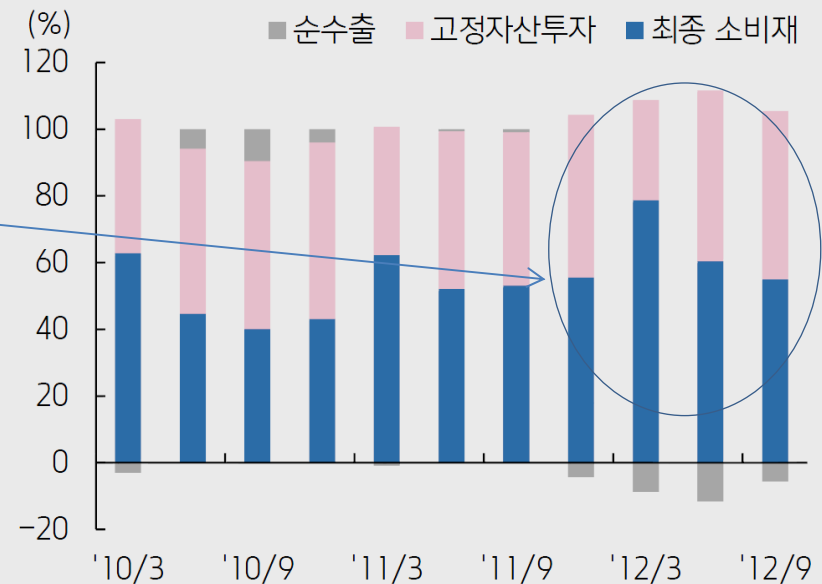
경제 성장의 3요소(투자/소비/수출)

GDP내 항목별 비중 추이



자료: Bloomberg

중국 GDP 기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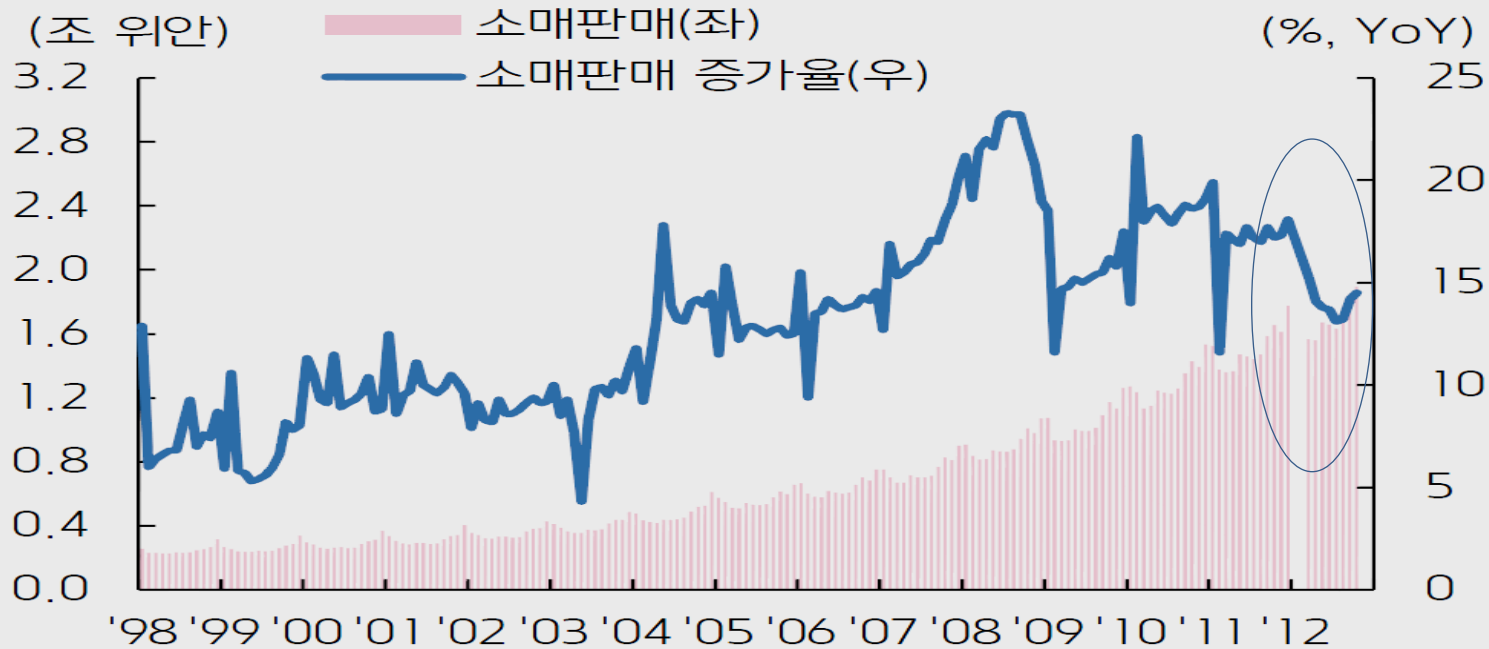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CEIC



A.2.2 중국경기 하락원인 – 소비

- ❖ 성장엔진을 수출에서 내수로 바꾸고 있으나 소비는 빠르게 늘기는 어려워
 - 금융위기 이후 소매판매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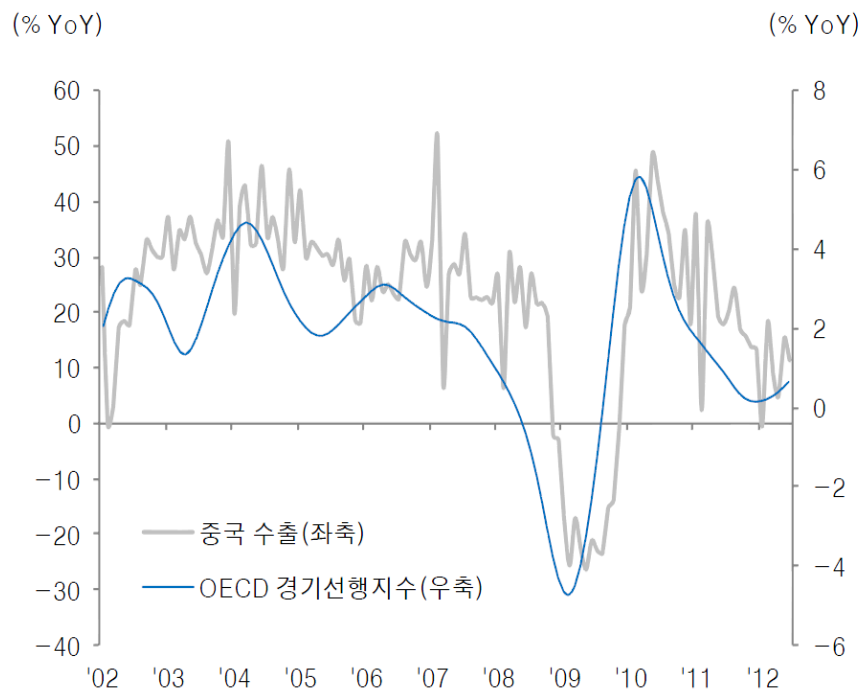


A.2.3 중국경기 하락원인 - 수출

❖ 과거 중국은 수출 위주의 성장을 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수출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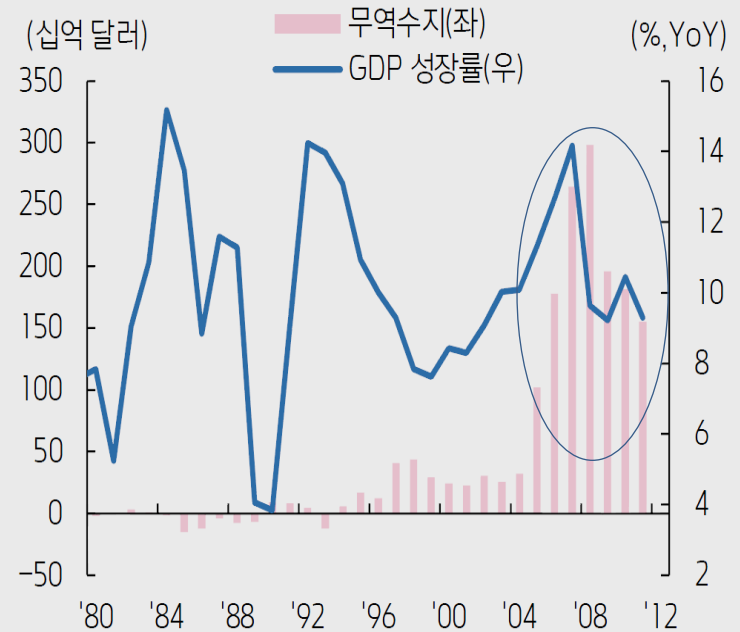
-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수출이 늘어나기는 어려워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중국 수출



자료: Bloomberg

중국 무역수지 증감



자료: 해관국,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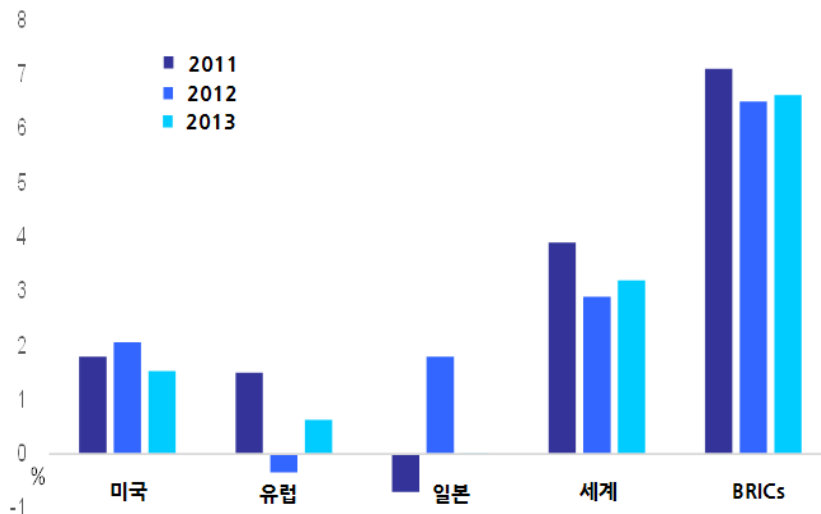
A.3.1 당분간 중국에 수출에 기대기는 힘들어

❖ 수출은 중국정부가 조절할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의 회복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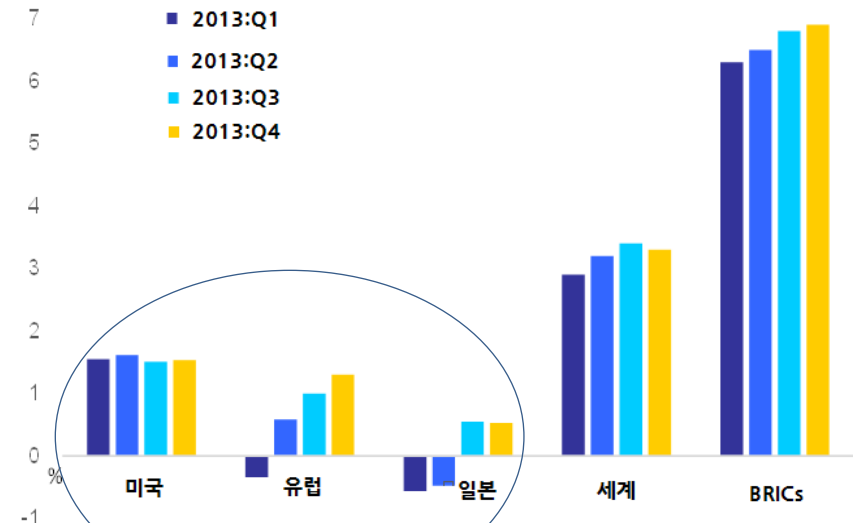
- 세계경제는 3% 성장 기대, “상저(低)후고(高)” 추세 예상
- '13년 세계경제 회복은 주로 신흥시장 국가에 기대해야 할 듯

❖ **중국의 주요 수출 3개 지역의 성장을 당분간 기대기 힘들**

- 미국 경제가 선진국 중 가장 좋을 것이나 2013년 2.0% 이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유로존 및 일본의 경우에는 2013년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자료: CEIC, 신은만국리서치



A.3.2 소비확대는 장기과제

❖ 소비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현재 경제가 성장한 것에 비해 **복지 수준은 굉장히 낮은 편**
- **사회보장체제 구축은 장기과제**
- **가처분소득의 증가도 장기과제**(**고부가가치산업 육성 + 자본시장 육성이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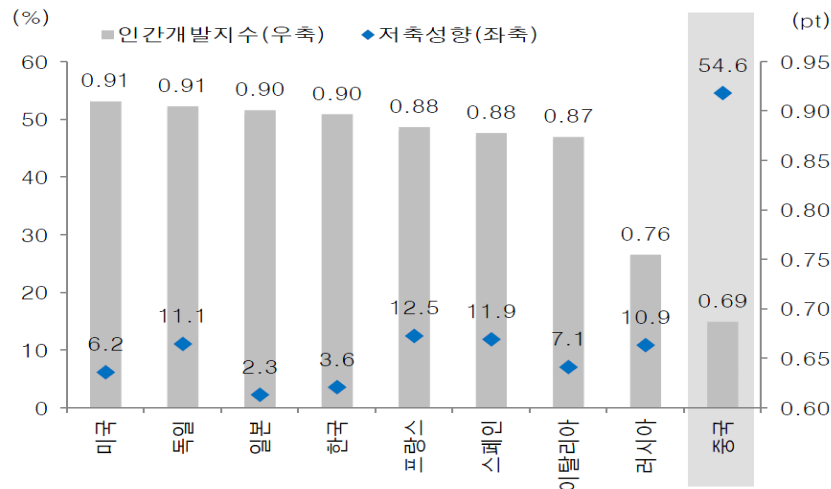
✓ 가게가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는 핵심 이유는 낮은 복지수준 때문으로 판단

✓ 저축률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 감소가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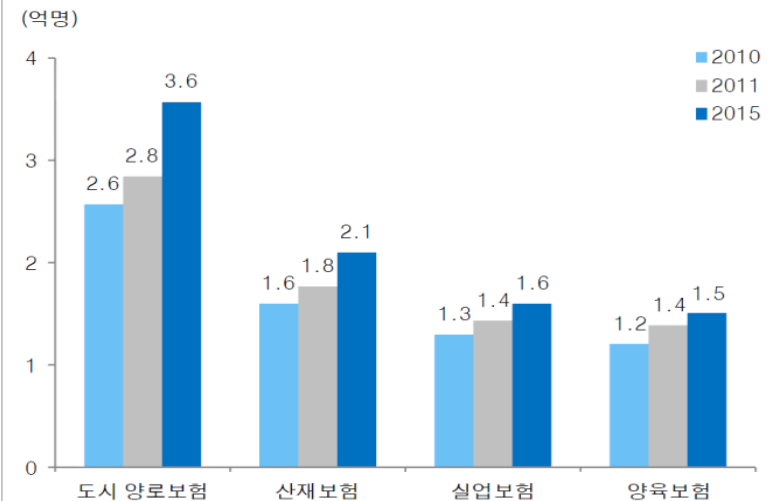
✓ 도시 양로보험의 경우 2015년에 3.6억 명, 산재보험은 2.1억 명 등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

경제규모에 못 미치는 낮은 복지 수준



주: 인간개발지수는 UN에서 교육, 복지, 환경 등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평가한 복합지수
자료: UN, OECD, 중국국가통계국, 신한금융투자 투자자문부

중국 4대 보험 확대는 장기적인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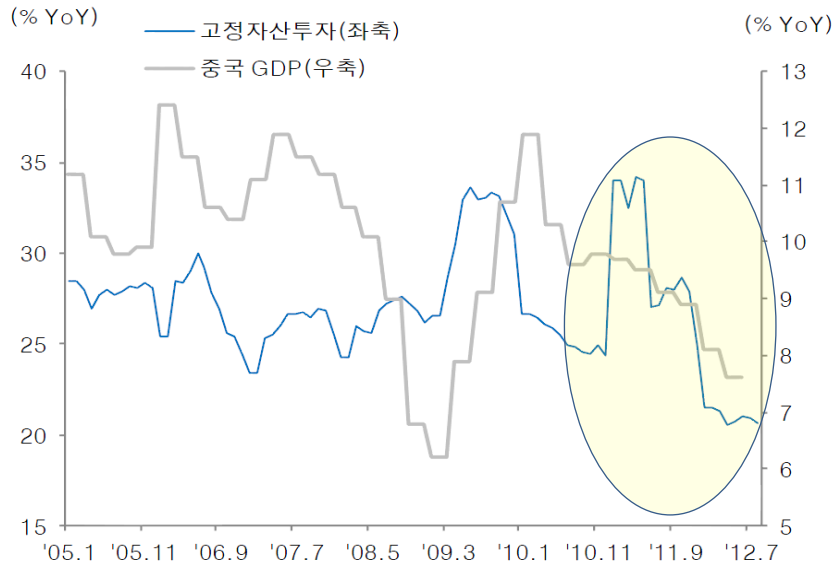
자료: 인적자원사회보장부



A.3.3 남은 것은 투자로 성장할 수 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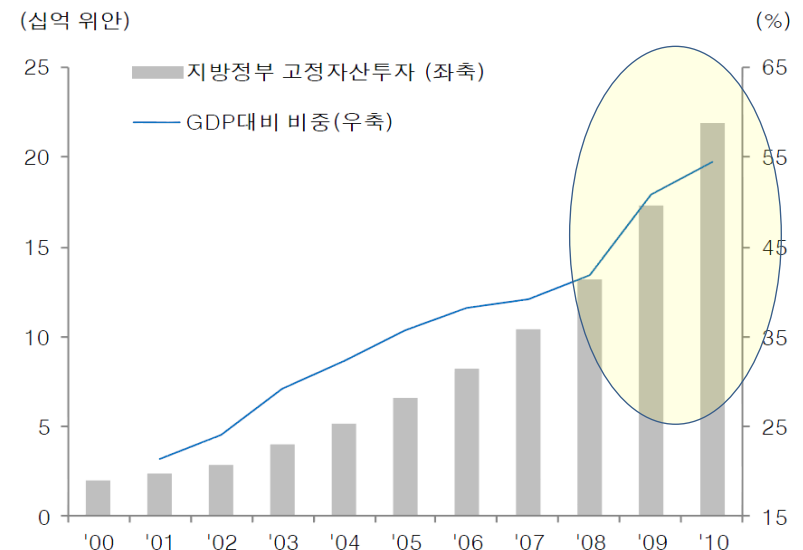
- ❖ 투자는 정부가 조절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책 수단으로 용이
 - 금융위기 이후 투자로 경제를 성장시킨 중국
 - 부동산 버블이 나온 이후 투자가 위축되며 중국 경제도 하강
- ❖ 중국 경제성장은 지방정부 투자기여도가 높았음

중국 GDP vs. 고정자산 투자



자료: Bloomberg

GDP 대비 지방정부 고정자산투자 비중 54.5%까지 상승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국토자원부

A.3.4 경기회복의 Key – 지방정부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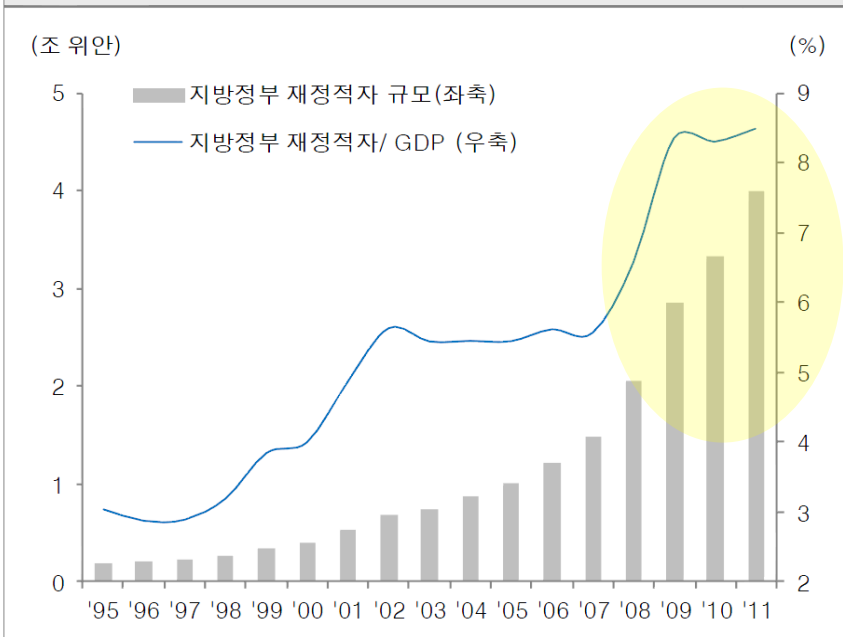
❖ 지방정부 부채 사용처의 78%가 도시건설 등 인프라 및 부동산 관련 투자에 사용

– 따라서 부동산 경기악화는 투자비용 회수 및 토지양도 통한 부채상환 계획에 어려움 가중

❖ 과거 2년간, 고정자산의 투자가 전체적으로 과잉된 상황에서 부동산과 제조업 투자는 다시 가동되기 어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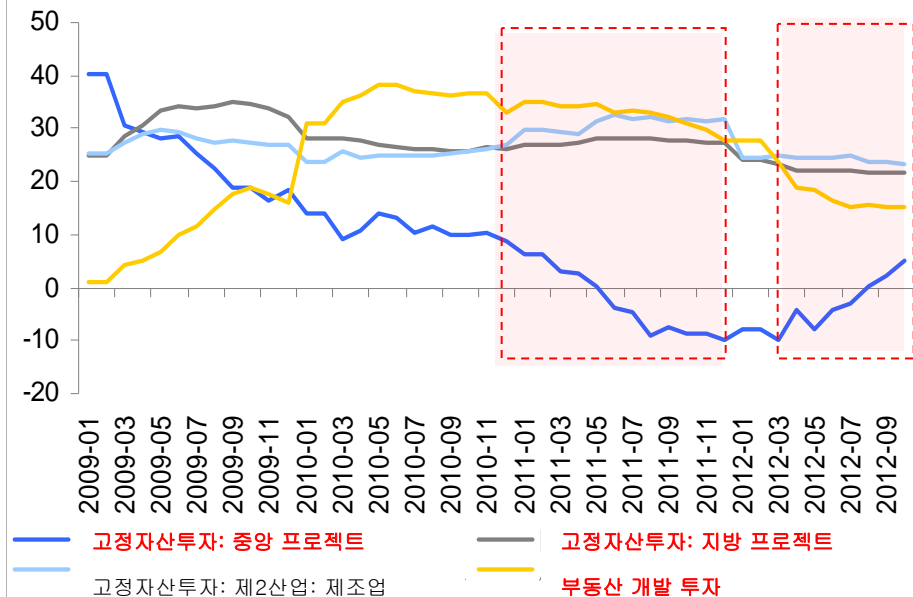
1) 2011년 국유투자(특히 중앙정부투자) 철수하고, 부동산과 제조업 투자가 마지막 프로젝트 완성

지방정부 부채 가운데 78% 가량이 건설 관련 투자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09년 이래의 고정자산투자 세분항목의 변화(YO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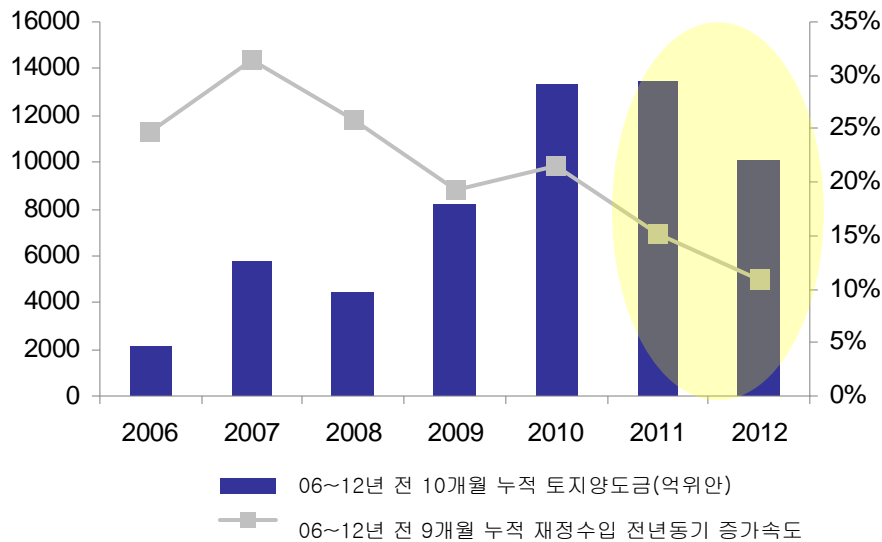


자료:CEIC

A.3.5 지방정부 투자 변수 – 지방정부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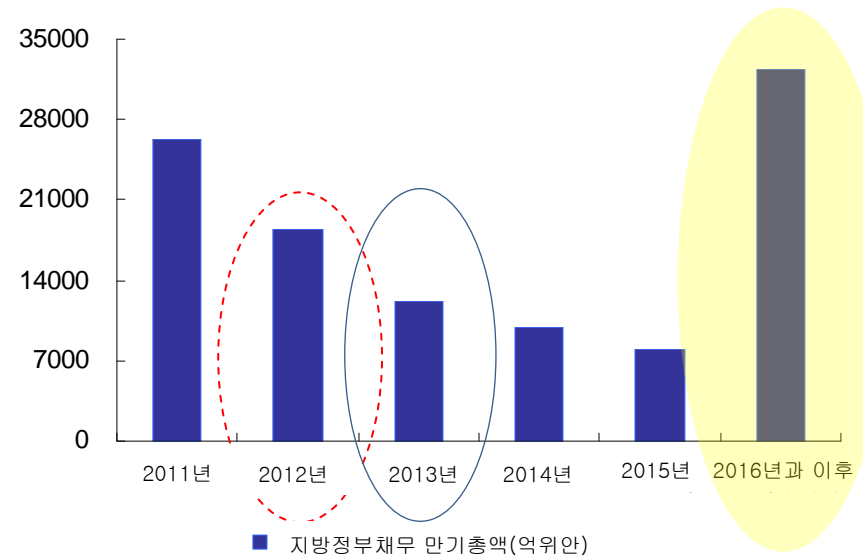
- ❖ 중국 지방정부들의 투자계획은 많이 있으나 재정이 불안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
- 재정수입과 지방 토지수입도 모두 하락함
 - **지방정부 재정 악화가 심각해질 경우** 중국 전체 성장을 훼손시키는 위험요인으로 판단

토지양도금과 재정수입의 변화



자료: 중국지수연구원, CEIC, 신은만국리서치

연도별 지방정부 채무 만기총액 변화



자료: 심계서(中华人民共和国审计署)

A.3.6 지방정부 투자 변수 – 부동산 경기

❖ 2013년 경기부양책은 2012년보다 강화될 가능성 있음

- 1~2차례 기준을 및 대출금리 인하 등 완화된 통화정책 예상
- 승인된 투자 프로젝트 실시, 신규 소비촉진책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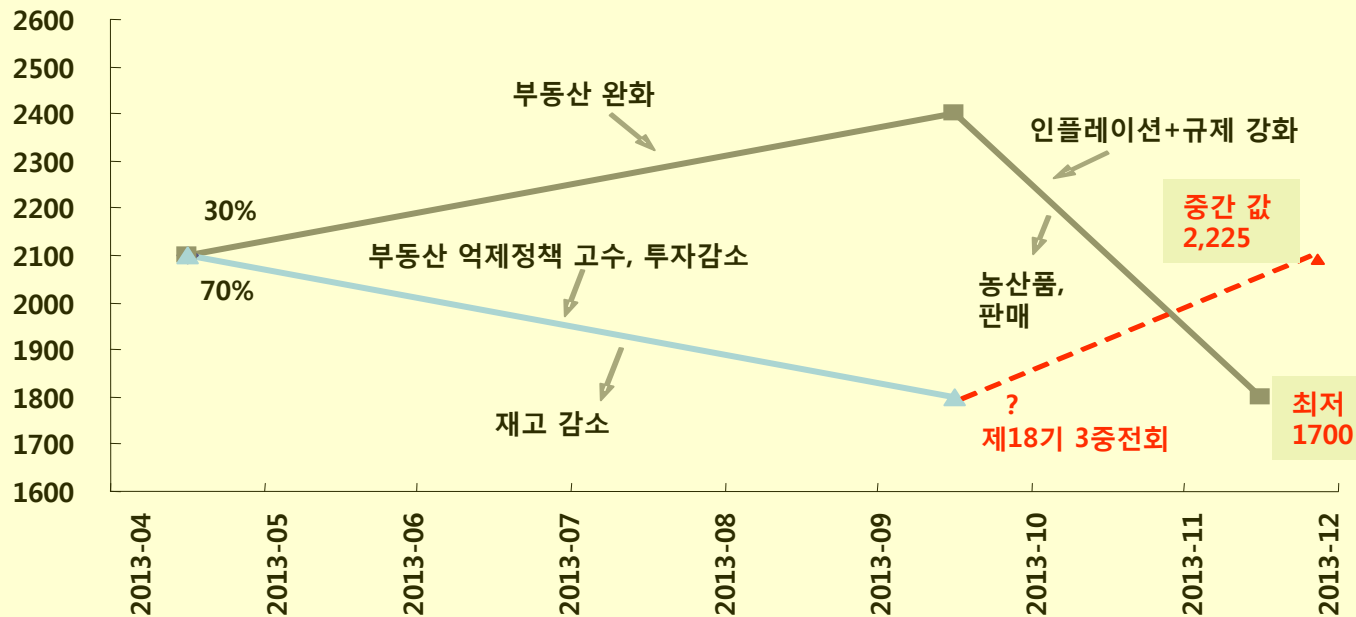
❖ 부동산 억제정책 완화여부가 Key

4월 결단 – 부동산 정책 완화여부?

투자하락,
실업률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상해종합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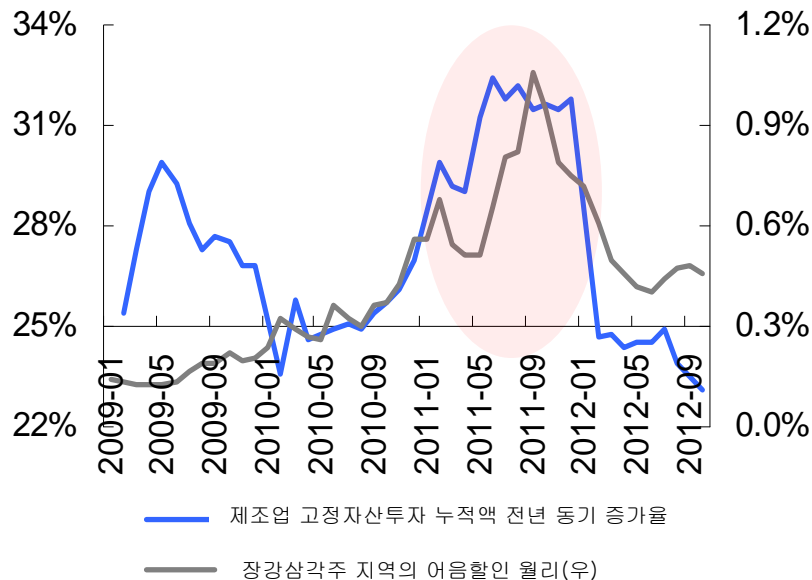
A.3.7 지방정부 투자 변수 – 과잉생산 능력

❖ 과거 2년간, 주기 내 고정자산투자의 절정기로, 향후 몇 년 간 생산능력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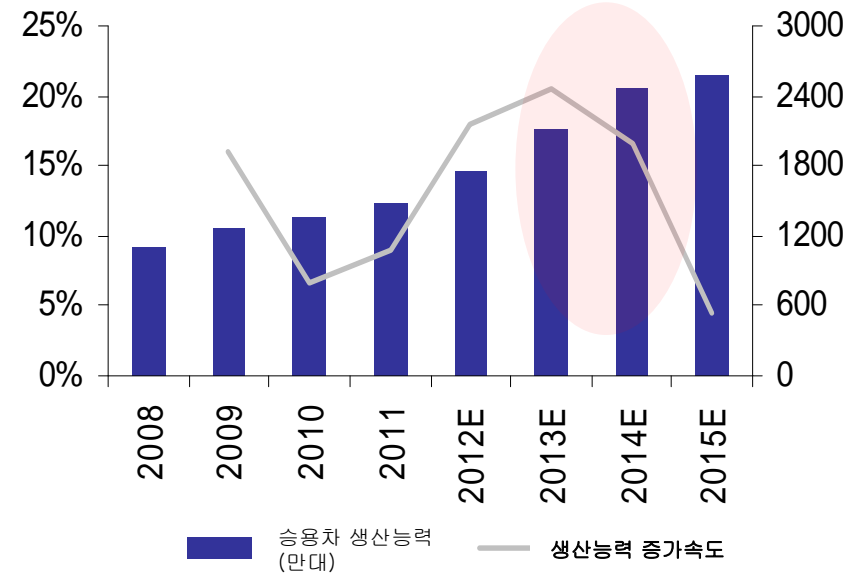
- 예컨대 자동차 산업은 생산능력 투입의 절정기일 것으로 예상됨
- **정부투자지출이 시장수요를 이탈한다면 경제회복은 지연될 수 밖에 없음**

❖ 중국의 중요소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2009년 4%에서 현재의 2%)

09~11년은 제조업 투자의 절정기



'13년 자동차 산업은 생산능력 투입의 절정기를 맞이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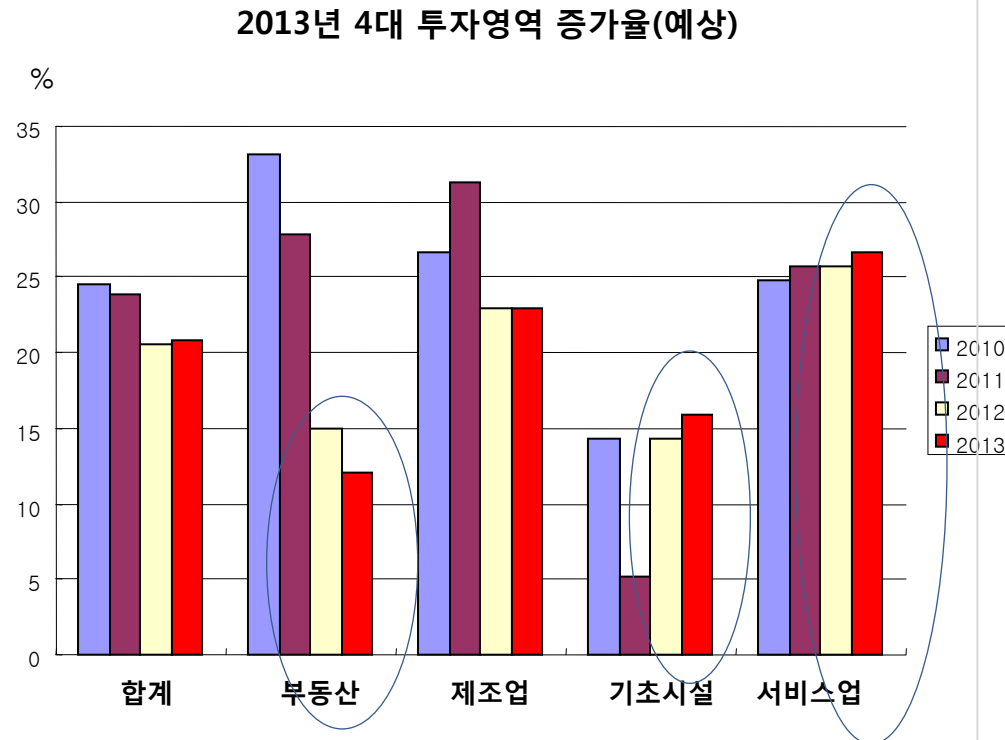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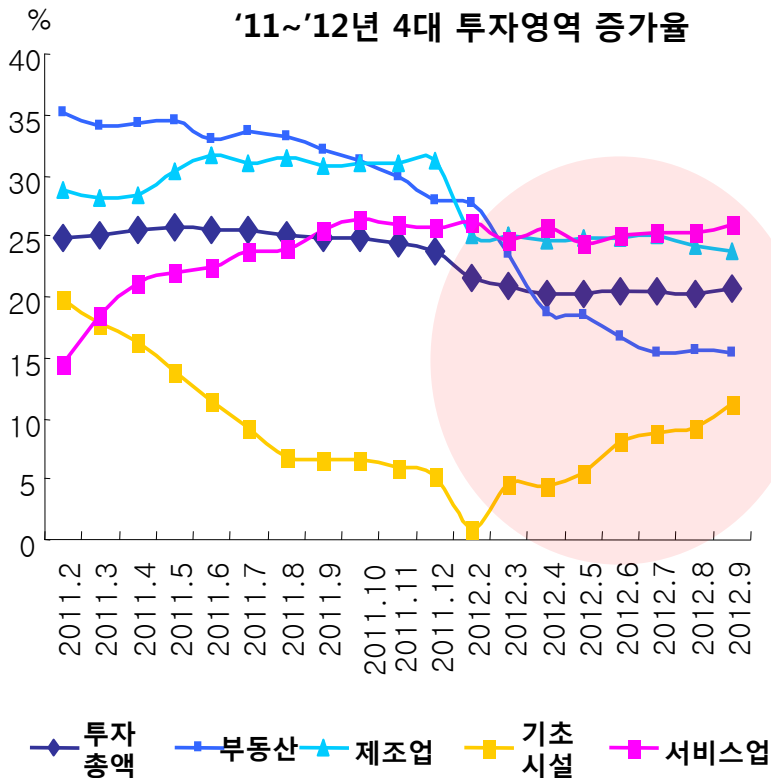


자료: Wind

A.3.8 2013년 정부 투자 전망

❖ 2013년 기초시설과 서비스업 투자가 2012년보다 증가될 전망

- '12년 기초시설투자와 서비스업투자가 '11년보다 증가
- 제조업분야에서 고기술제조업 설비 투자 증가 예상



자료: CEIC



A.4.1 2013년 경기회복 시점

❖ 정권교체 이후 당해 연말 및 임기 첫해에 적극적 정책시행 가능성 높음

- 89년 장쩌민이 실권을 잡은 이후 투자 급증
- 후진타오가 정권을 잡은 2002년 이후에도 투자 증가
- '12년 10월 정권교체 이후 임기첫해('13년) 투자 증가를 기대케 해

지도부 교체 이후 고정자산 투자 증가속도는 안정 속 증가 (%)

자료: 동북증권, KCMi

구획	기간	1년	2년	3년 (임기첫해)	4년	5년	3년-2년 증가율 차이
8차 5개년 계획 (강택민정부 등장)	1991~1995년	NA	36.80	65.50	32.80	21.60	28.7
9차 5개년 계획 (강택민정부)	1996~2000년	12.30	9.30	17.20	5.50	10.50	7.9
10차 5개년 계획 (호금도정부 등장)	2001~2005년	14.40	18.30	29.10	28.80	27.20	10.8
11차 5개년 계획 (호금도정부)	2005~2010년	24.30	25.80	26.60	30.40	24.50	0.8
12차 5개년 계획 (시진핑정부 등장)	2011~2015년	23.80	2012년 10월 20.7	약 20% 이상 예상			
13차 5개년 계획 (시진핑정부)	2016~2020년	투자중심에서 소비주도의 경제로 전환해야 함					
14차 5개년 계획 (6세대 지도부 등장)	2021~2025년			6세대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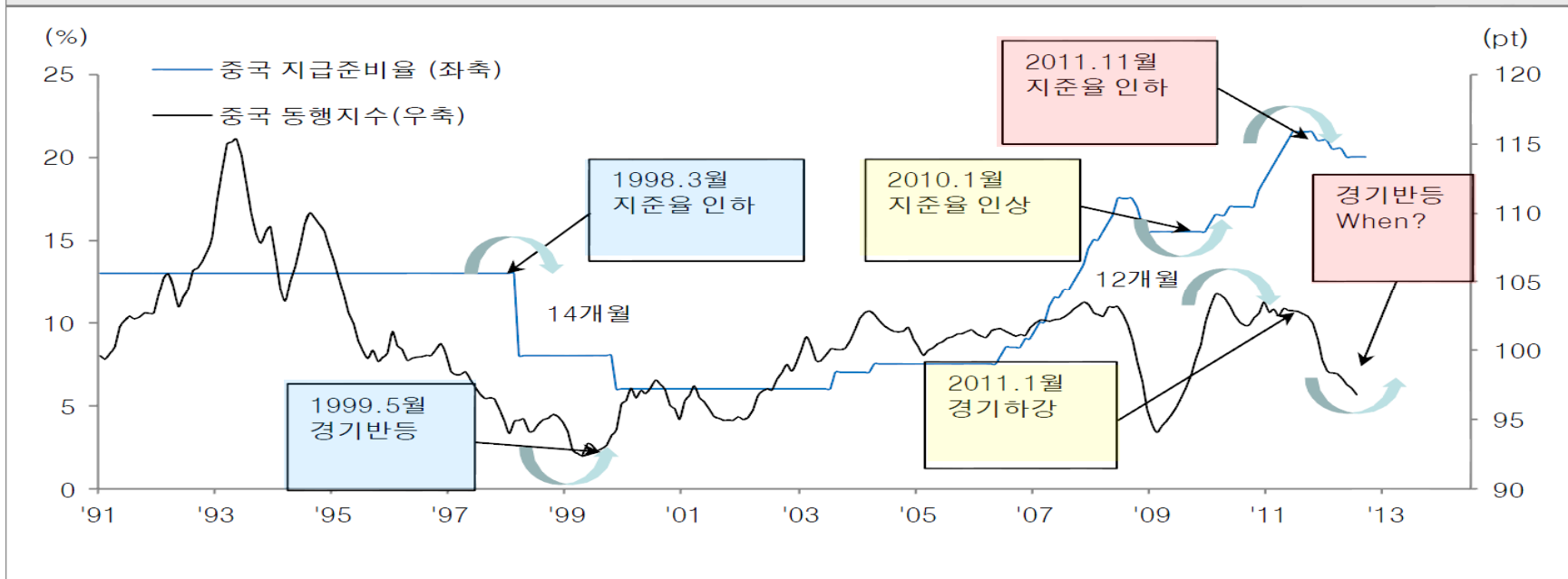


A.4.2 2013년 경기회복 시점

❖ '12년 4분기 이후에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 통화정책 효과도 '12년 연말부터 나타날 것

- 1998년 기준을 활용한 통화정책 사용한 이후 경기에 반영되는 시차는 통상 1년 전후로 나타나
- 그렇다면 이번 기준을 인하 사이클에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시기는 빠르면 '12년 4분기로 예상

통화정책 변화가 경기에 반영되는 시차는 통상 1년 전후. 그렇다면 이번 경기반등 시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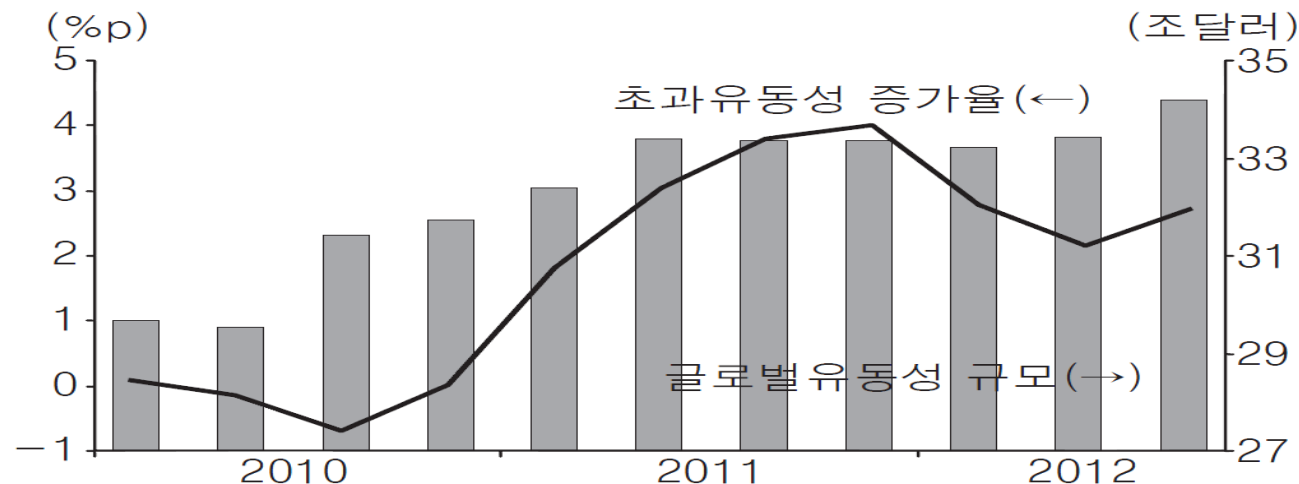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A.4.3 글로벌 유동성 증가세 다시 확대

❖ 금융시장의 불안이 완화될 경우 금리가 낮은 선진국 통화를 조달하여 신흥국에 투자하는 캐리 트레이드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음

- 신흥국의 금리 인하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금리차가 다소 축소되기는 했으나,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선진국 통화에 비해 강세를 띌 것으로 보여 환차익 기대까지 감안하면 캐리트레이드의 유인은 적지 않음



- 주 : 1. 초과유동성 증가율=광의통화(M2)증가율-GDP증가율
2. 각 증가율은 G4(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의 달러표시 명목GDP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수치
3. 글로벌 유동성 규모는 G4의 광의통화를 달러로 환산하여 합한 수치

자료: IMF, Global In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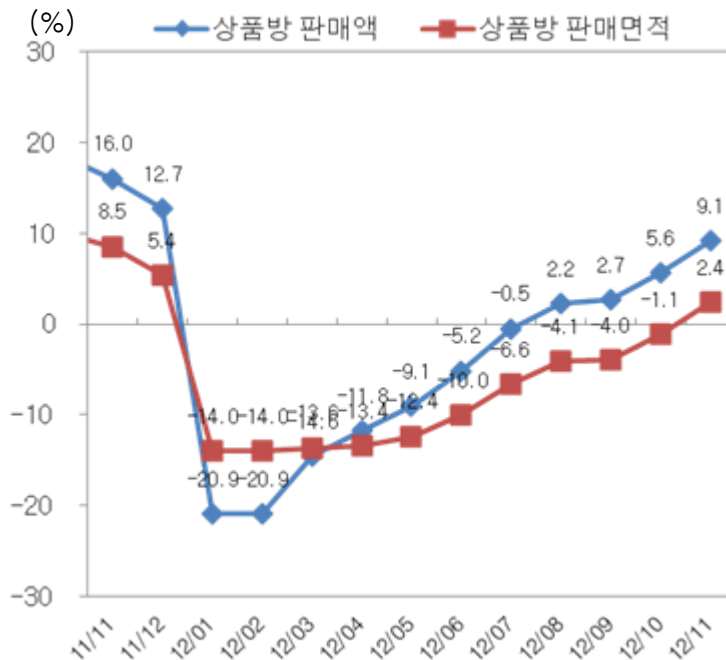


A.4.4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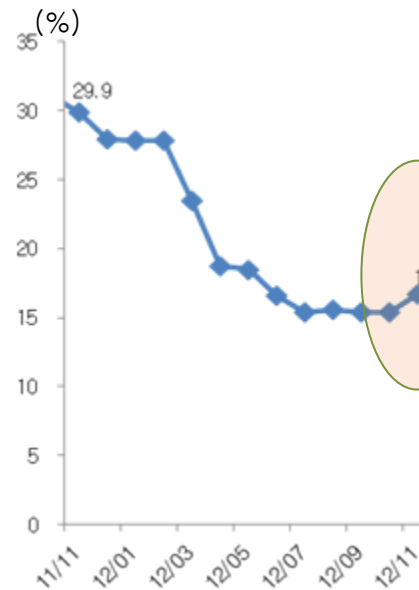
❖ 부동산 경기 하락세 완화

- 부동산 가격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4월부터 +로 전환 대도시 중심으로 상승 조짐**
- 부동산 투자는 증가율 둔화세 완화, 자금 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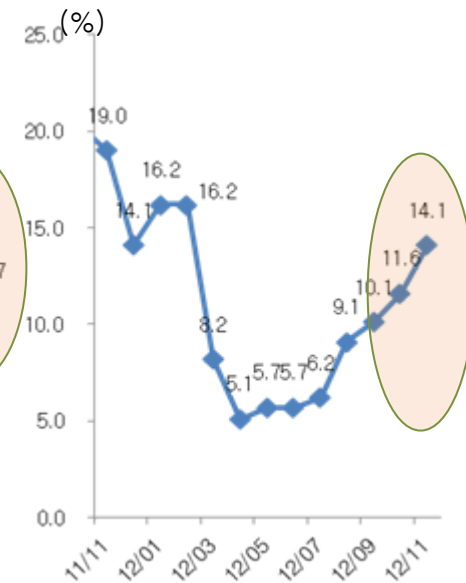
전국 상품방 누적 판매면적 및 판매총액 증가추이



전국 부동산 개발투자 증가추이



전국 부동산 개발기업 자금조달 증가추이





A.5.1 주요이슈: 소비중심의 성장동력 이동

정책 대응	투자중심의 경제발전전략	소비주도의 경제발전전략
대표선수	지방정부 + 국유기업 + 국유은행	시장중심 + 민영기업 + 자본시장
재정정책	느슨함 고정자산투자 중심	소비확대 추진정책 경제구조개혁에 착안점을 둠
통화정책	완화 대출을 통한 투자확대	중소기업, 고기술산업, 녹색산업 육성 방향으로 완화 고소득 경제구조 확립 유도
경제에 대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 성장률 단기지속 가능하나 ✓ 과잉투자와 환경파괴와 자원고갈 심각 ✓ 과소소비 초래 ✓ 지속적인 경제성장동력 결핍 ✓ 여전히 자본축적과 취업확대를 통해 부를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착륙 시도 ✓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신흥전략산업 육성 ✓ 중공업이 경공업을 대신해 수출성장의 주요동력이 되어야 함 ✓ 창출하는 부는 혁신에 의한 부이어야지 자본누적에 의한 것이 아님
CPI에 대한 영향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신규대출규모 속도와 정비례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적으로 완화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정책강도가 높을수록 단기시장영향이 빨리 나타나지만 추후 불안요인이 커질 것	재산성 소득증가를 위한 금융투자상품으로 다양해 질 것이고 금융시장도 커질 것임
지속가능성	단기영향에 그침	장기적인 영향
2013년: "온중구진(穩中求進)"- 정부의 재정실력과 정책운영공간이 아직 남아 사용할 수 있는 정책카드가 있어 연착륙 가능		
지방정부 실행가능성	계속 해왔던 것으로 실행하기 쉬움 (경로의존성, 단기성과 예측 가능)	환경여건과 현실정책 실시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 (단기성과 불확실성 높음)

지방정부 관료 평가기준: GDP + 재정수입



A.5.2 주요이슈:시진핑지도부의 개혁과제

(1) 정부 vs. 시장 - “국퇴민진”이슈가 핵심

- 국유독점업종의 개혁을 심화하여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 작용을 발휘
- 다양한 형태의 소유제 공동발전, 민영기업 발전 촉진
- 금융체제 개혁, 자원가격 개혁, 대외경제 체제 개혁

(2) 공산당 vs. 공민 및 사회조직 - “제도 선진화(법제화), 정부 투명화”이슈가 핵심

- 법에 따라 행정과 사회관리 혁신을 추진, 정부업무공개 확대와 감독보완
- 행정체제 개혁
-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확립 필요: 사회전반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사회적가치

(3) 경제발전 vs. 사회복지 건설 - “사회보장제도 구축” 이슈가 핵심

- 사회사업, 소득분배 등 개혁을 추진하여 사회 공평정의를 효과적으로 보장
- 사회보장제도 개혁

(4) 도시 vs. 농촌 - ‘토지개혁’ 이슈가 핵심

- 공업화, 도시화, 농촌현대화 추진
- 농촌개혁(관건은 토지개혁)

(5) 중앙 vs. 지방 - ‘세제개혁’ 이슈가 핵심

- 각급 정부사이의 재정분배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
- 재정.세수 체제개혁

Part B

시진핑정부의 금융정책 동향



B.1.1 경제발전방식 전환에서의 금융역할

투자중심 (공업화)

- ◎ 공업화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발전방식 단계에서 주로 **공업부문에 금융자원을 집중** 시킴
- ◎ 대표적인 특징으로, 고정자산투자는 통상 '생산성투자'로 분류되고, **각 지역의 발전은 주로 공업 프로젝트 투자 (특히 대형 공업프로젝트)에 의존함**
- ◎ 따라서 이 단계에서 '과잉투자(高投資), 과에너지 소비(高耗能), 고오염(高汚染)' 등 '**3고**'현상은 **피할 수 없음**

내수확대 (도시화)

- ◎ 도시화 (城镇化)에 의한 내수경제로의 발전방식의 전환은, 앞으로 중국 **금융자원은 주로 도시화 추진을 중심으로** 분배됨을 시사함
- ◎ 따라서 **소비성투자(住,行,學)**가 투자의 중심이 될 것임
- ◎ 소비촉진 정책 단행, 이는 앞으로 중국에서 **민영금융, 녹색금융, 저탄소금융, 환경보호금융** 등이 중국 금융발전의 주요특징이 될 것
- ◎ **자본시장 육성으로 자본소득 증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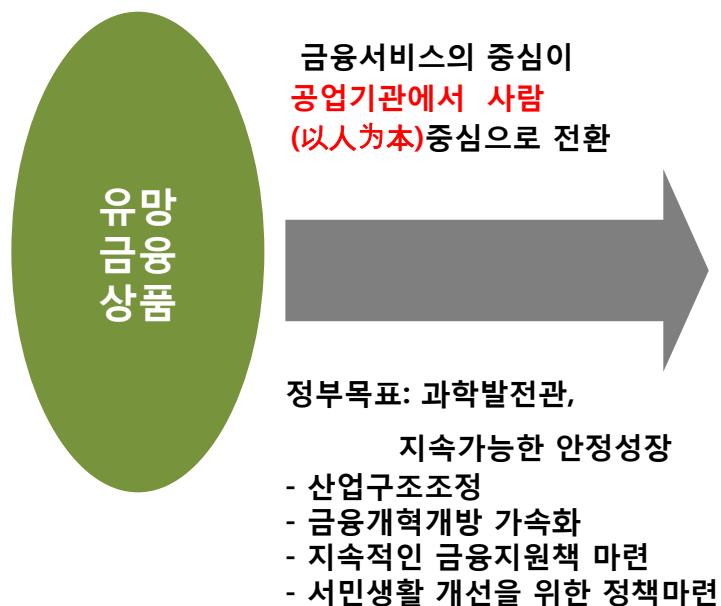
대외개방확대 (도시경제)

- ◎ 도시화 (城镇化) 건설 발전에 수응하여 중국 각 지역의 대외개방은 더욱 심화될 것
- ◎ 기존의 **공공업 제조업 중심의 개방에서 도시경제관련 산업으로 대외개방 범위가 확대될 것**
- ◎ 앞으로 **유치해야 할 것들이** 공공업 발전을 위한 기술, 관리와 체제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도시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 관리와 체제임**
- ◎ 따라서 **도시경제 발전에 필요한 금융상품 개발과 유치가 시급함**

예: 문화교육(영화, 오락 등), **쇼핑몰**, 의료보건, 노후경제, 광고, 여행, 연구개발 및 설계, 부동산 경영, 항공운수, 물류, 금융, 상업, 전시회, 환경보호와 공공관리 등을 중심



B.1.2 금융서비스 중심의 전환 필요



- ◎ 보험상품(재산보험,생명보험, 투자저축형 보험)
- ◎ 개인자산관리 금융상품
- ◎ 자산증권화
- ◎ 금융거래를 위한 파생상품

- ◎ 도시경제 관련 산업과 도시건설 관련 대출상품
(예: 도시건설 채권)
- ◎ 산업투자펀드와 사모펀드(PEF)
- ◎ 부동산 신탁기금(REITs)
- ◎ 도시경제 발전관련 상장회사의 수가 늘어날 것

B.1.3 시진핑 지도부의 자본시장 육성정책

12.5 기간 자본시장의 15개 방면 중대 개혁안 발표...

○ '규획'에서는 미래 시장 발전이 시장화, 법제화, 국제화의 특징을 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자본시장의 역량도 한층 향상될 것임.
- '직접투자 비중을 현저히 제고한다'는 총체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본시장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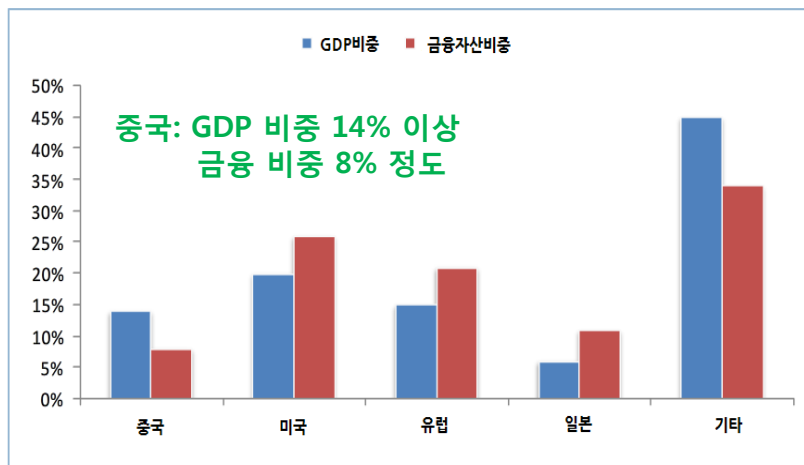
○ '규획'은 미래 자본시장의 개혁 방향을 3가지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시장구축)장외시장, 채권시장, 파생상품시장 3개 시장을 발전시켜 시장의 수익능력과 위험분산능력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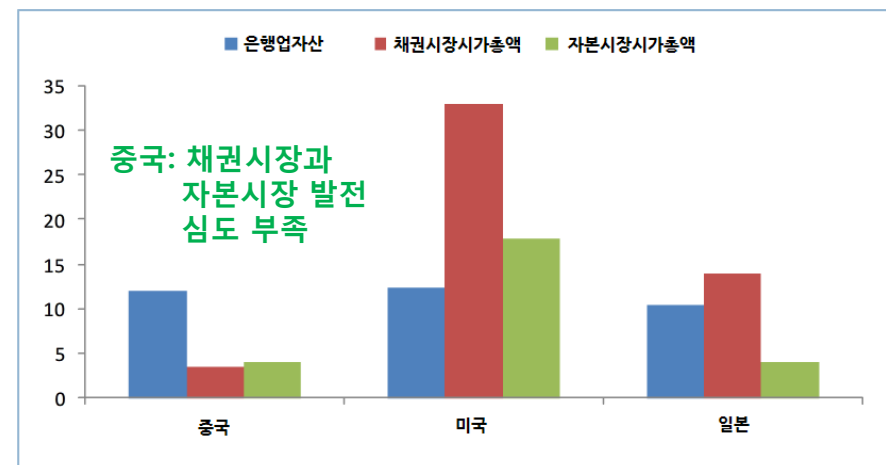
(투자자육성)자산관리 업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기관투자자 육성에 힘쓰는 것**

(제도구축)시장의 자체 운행체계를 완비하고 발행체제와 퇴출제도를 개혁하며 내부자거래 행위를 엄격히 차단

글로벌경제에서의 경제규모 비중 대비 금융비중 비교



자본시장과 채권시장 발전 심도비교





B.2.1 2013년 금융시장 개방동향

2013년 금융시장의 개방의 변화 클 듯...

- 2012년 3월 절강성 원저우시는 금융개혁 특구로 선정, 시범적 개혁개방 시작을 알려
- 투자영역과 금융서비스 영역에 대한 개혁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투자영역 : 위안화 국제화,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외국인 직/간접투자 확대 방안, 국제판 출시 등
 - 금융서비스 영역 : 채권시장 개방, 신용서비스 및 온라인 금융서비스 개발, 국제적 금융상품 판매 다원화 그리고 농촌 금융개혁 등
- 위안화는 무역결제 통화 수요 확대와 채권시장 구축을 통한 투자가치 제고로 국제화 과정 가속화
- 외국인들의 진입 QFII의 제한범위 완화는 지속될 듯, 이를 위해 중국 투자매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금융시장의 개혁개방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것

2020년 금융시장 개방 계획

1단계(1~3년)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장려(走出去(조우추취) 전략)
2단계(3~5년)	위안화 상업 신용대출 확대, 위안화 무역결제 국가 확대, 국제화 가속
3단계(5~10년)	先 자본유입 개방/後 자본유출 개방 부동산, 주식, 채권 순으로 개혁개방 금리자유화 추진

자료: 현지언론, 인민은행조사통계국



B.2.2 중국 금융감독관리기관의 2013년 정책동향

중국인민은행 (PBo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건(穩健)’한 통화정책을 펴나가되 대응성, 유연성, 전망성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 - 국내 및 해외 경제·금융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금리 자율화 개혁을 추진 - 금융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금융시장 발전을 가속화하며, 외환관리를 개선하고 금융서비스와 관리수준을 높일 것 - 금융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 - 물가의 안정을 유지, 경제의 지속적인 건강한 발전을 추진할 것임
중국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 (CBR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서비스능력과 수준을 높임: 서민주택 건설, 국가의 전략적 산업, 중소기업과 ‘삼농(三農)’분야에 대한 대출지원 확대 - 경제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3高”산업과 부동산 산업 대출제한, 임대주택 대출확대 - 금융상품과 서비스 혁신 및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감독 시스템 완비화, 리스크 관리 강화와 제도구축, 지방부채 리스크 해결 - 그림자은행 규범화: 그림자은행을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인 증권화 추진, 관리감독 강화, 리스크 관리 - 자기자본 비율 상향 조정: 6대 대형은행 11.5%, 기타 10.5% 상향 조정
중국증권 감독관리위원회 (CSR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시의 질적변화와 투자자 신뢰강화: 주식 발행 제도의 시장화, 시장퇴출제도 및 배당제 개혁 등 조치 - 중국 역내기업의 해외상장 요건 완화: 해외 상장지의 요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CSRC에 신청, 순자산 4억위안, 세후이익 6,000마위안 등 중국내 요건 폐지할 전망
중국보험 감독관리위원회 (CIR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리스크 예방능력 향상 도모: 민생보장시스템건설 강화 - 사회빈곤층과 약자를 위한 보험서비스강화: 농민공, 유동성인구를 위한 사회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급확대 - 사회보장체제개혁 진행을 위한 보험서비스를 강화: 양로보험체제와 의료보험 서비스 강화 - 보험시장 개혁 강화: 농업보험 정책 발표, 자본시장 상장, 자산운용채널 확대 등
외환관리국 (SA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자본 유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급격한 유입과 유출에 따른 충격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자본항목자유태환의 점진적 추진: 외환시장 육성 가속화, 무역투자 편의를 촉진하고 관리방식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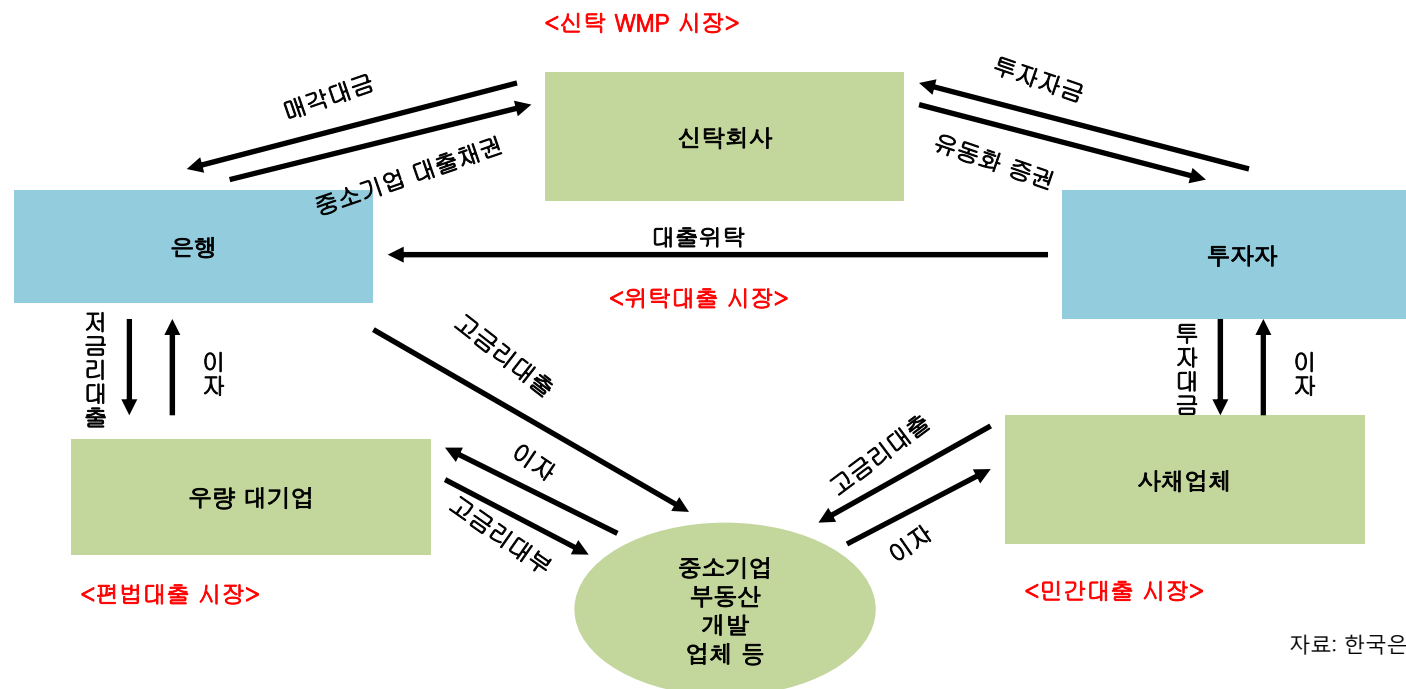
B.2.2 중국 금융업 2013년 전망

	'13년 금융업 변화내용 전망
이행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리시장화 개혁의 가속화 진행과 중국형 바젤III <<상업은행자본관리방법(시범)>> 시행에 따라 새로운 수익모델 수립에 따른 금융상품 혁신이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것 - 예대마진율 15bp하락에 따라 상장은행 순이익 증가율이 5% 하락될 것 - 전년기준 업적실적증가율이 한자리수대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상장은행 순이익 증가속도가 7~8%될 것으로 전망됨
중점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에 이어 금융혁신이 가장 중요한 과제, 과거 전통적인 브로커리지업무 중심에서 자산관리상품으로의 혁신이 될 것 - 업무제한 범위와 투자방식 제한 완화가 기대, 역외업무 개발, 증권사 상장과 인수합병 격려, 중소기업채권시범발행 및 장외시장 건설이 핵심이슈가 될 것 - 선물업의 경우 기관투자자의 진입허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선물펀드 등과 같은 선물시장 전문투자관련 상품이 많이 출시될 것
과제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에 이어 올해에도 보험금의 투자제한 확대가 이어질 것. 특히 자산관리상품과 신탁계획 상품에 대한 투자가 허용가능 - 새로운 저축 및 투자형 상품 출시도 기대가 되는데, 상해를 시범지역으로 세금우대형 양로보험 상품의 출시 가능
신박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 신탁업의 관리자산규모가 11월 기준 6.98조위안으로 보험업의 6.92조위안을 초과하여 금융업의 제2신용기관으로 성장. 따라서 신탁업 위험도 크게 팽창되어 '13년의 중요한 금융리 스크로 부상될 것 - 특히 부동산 관련 신탁업과 광산 및 예술품 관련 신탁상품이 기초자산 가격 하락으로 큰 위험에 직면할 것
펀니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 말 <<신편드법>> 출시로 '13년은 펀드업에 대한 제도적 개혁과 혁신이 심화될 것 - 특히 “보유인대회(持有人大会)”제도 출시로 펀드관리비용이 기존의 펀드회사 일방적 결정에서 펀드보유자 참여결정으로 바뀌면서 크게 하락될 것

B.3.1 핵심리스크: 그림자 금융

- ❖ 그림자금융은 대체로 은행의 부외활동을 통해 공급된 신용과 은행권 이외의 부문에서 창출되는 신용
- ❖ 최근 중국의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이 빠르게 팽창 : 정확한 규모 파악 못함, **현재 25조위안으로 추정**
 - 급증배경 ① 수요측면 : 긴축으로 중소기업 자금난 가증 ② 공급 측면 : 마이너스 실질 예금금리 지속
- ❖ **그림자 금융의 부실화가 확산될 경우 은행권으로 전이됨으로써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리스크 증대 가능성**
 - **최근 원저우 지역에서 그림자금융을 이용한 중소기업들의 연쇄적 도난→ 그림자금융 부실 확산 우려**

그림자 금융 시장 구조



자료: 한국은행 재인용